이강인·조규성, 포르투갈 잡고 '도하의 기적' 쏜다

벤투호의 새 희망이자 심장
조규성 광주·이강인 전남과 인연
포르투갈전에서 득점 합작으로
카타르에서 제2의 기적 기대

이강인

조규성

벤투호가 광주대 출신 조규성(전북)과 '골든보이' 이강인(마요르카)을 앞세워 '제2의 도하의 기적'에 도전한다.

이들은 가나와 월드컵 예선 2차전에서 추격골을 합작하는 등 맹활약해 벤투호의 새 희망이자 심장으로 떠올랐다. 둘은 공교롭게도 광주·전남과 인연이 깊다. 조규성은 광주대학교 출신이고, 이강인은 뿌리를 강진군에 두고 있다. 어머니가 강진에서 태어나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할머니가 현재 강진 성전면에 살고 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2월 3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0시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포르투갈을 상대로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마지막 3차전을 치른다.

벤투호는 가나전에서 머리로만 2골을 몰아친 스트라이커 조규성의 골 결정력에 희망을 건다.

피지컬이 뛰어난 가나 수비수와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멀티골을 쏜 조규성이 포르투갈전에서도 제 기량을 보여준다면 '도하의 기적'이 재현될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커진다.

조규성이 골을 넣고 벤투호가 16강에 오른다면, 사상 두 번째 원정 16강 진출에 더해 귀한 개인 기록이 세워진다.

이미 조규성은 한국 선수의 월드컵 단일 경기 최다 득점(2골)이라는 신기록을 썼다.

이제 포르투갈전에서 득점하면 한국 선수 월드컵 단일 대회 최다 득점 신기록을 작성한다.

월드컵 한 대회에서 2골을 넣은 한국 선수는 2002 한일 월드컵의 안정환(현 MBC 해설위원)과 2018 러시아 월드컵의 손흥민, 둘 뿐이다.

조규성이 득점한다면 그는 한국 선수 월드컵 통산 최다 득점 타이기록도 쓴다. 3골씩을 넣은 박지성(전북 테크니컬 디렉터·SBS 해설위원), 안정환, 손흥민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벤투호는 이강인에게 기대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강인은 28일 가나와 2차전(2-3 패)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팀이 0-2로 끌려가던 후반 12분 권창훈(김천 상무)과 교체 투입됐고, 1분 만에 조규성(전북)의 만회골을 도왔다. 그는 창의적인 패스와 드리블, 정확한 크로스를 바탕으로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특급 조커'의 면모를 뽐냈다.

H조에서 가장 강한 팀으로 꼽히는 포르투갈을 상대하는 만큼, 이강인이 더 큰 임무를 맡을지도 관심을 끈다.

벤투 감독은 가나전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이강인의 실력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월드컵 본선 두 경기에서 실력을 잘 보여줬고, 우리 스타일에도 잘 녹아들었다"고 칭찬했다. 다만 선발 명단에 관해선 "전체적으로 지켜본 뒤에 변화를 줄지 결정해야 한다. 항상 그래왔듯 상대가 할 수 있는 것들과 상대의 약점을 분석해서, 우리의 장점을 살리는 선택을 할 거다. 최종 결정은 마지막 순간에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벤투호의 16강 진출 전망은 사실상 매우 어둡다.

우루과이와 1차전에서 0-0 무승부를 거둔 뒤 가나와 2차전에서 2-3으로 진 한국은 조 3위(승점 1·골득실 -1·득점 2)에 올라 있다.

포르투갈은 2연승으로 조 1위(승점 6·골득실 +3·득점 5), 가나가 2위(승점 3·1승 1패·골득실 0·득점 5), 우루과이가 한국에 이어 4위(승점 1·1무 1패·골득실 -2·득점 0)에 자리해 있다.

한국으로서는 이번에도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져 봐야 하는 처지다.

가장 큰 전제 조건은 한국이 포르투갈에 반드시 승리해야 16강 진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승리하더라도 가나가 우루과이를 꺾으면 한국은 짐을 싸야 한다.

가나와 우루과이가 비기거나 우루과이가 승리하는 경우에는 골득실, 다득점 등을 따져야 한다.

벤투호가 극적으로 16강에 오른다면 '제2의 도하의 기적'으로 한국 축구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도하에서 치러진 1994 미국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에서 막판에 일본을 제치고 극적으로 본선 진출 티켓을 거머쥐었고, 이는 '도하의 기적'으로 불려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지난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B조 미국 대 이란 경기 전반 38분에 미국의 크리스천 풀리식(24·첼시)이 득점하고 있다. 경기전 조 3위였던 미국은 이날 기존 조 2위였던 이란을 제압, 조 2위로 올라서며 16강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미국, 이란과 24년 만의 월드컵 맞대결 승리 …16강 골인

내일의 월드컵

12월 2일(금) ※한국시간 기준

경기	시간
크로아티아 vs 벨기에	00:00
캐나다 vs 모로코	00:00
일본 vs 스페인	04:00
코스타리카 vs 독일	04:00

자료 : FIFA

미국이 '정치적 앙숙' 이란과 24년 만의 월드컵 맞대결을 승리로 장식하며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진출했다.

잉글랜드는 웨일스와 '영국 내전'에서 승리하고 조 1위를 유지하며 16강에 올랐다.

미국은 30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앗수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과의 월드컵 조별리그 B조 최종 3차전에서 전반 38분 터진 크리스천 풀리식의 결승골을 잘 지켜 1-0으로 이겼다.

웨일스와의 1차전에서 1-1, 잉글랜드와의 2차전에선 0-0으로 비겼던 미국은 조별리그에서 1승 2무로 승점 5를 쌓아 이날 웨일스에 승리한 잉글랜드(승점 7)에 이어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미국은 A조 1위 네덜란드와, 잉글랜드는 A조 2위 세네갈과 8강 진출을 다툰다.

2010년 남아공, 2014년 브라질 대회에서 연속 16강에 진출했으나 2018 러시아 대회는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던 미국은 8년 만에 돌아온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조별리그 통과에 성공했다.

같은 시간 알라이얀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같은 조 경기에서는 잉글랜드가 웨일스를 3-0으로 완파했다. 이 경기는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본선 맞대결이었다.

잉글랜드는 웨일스와 A매치 상대 전적에서 69승 21무 14패를 기록했다. 지난 2018년 러시아 대회에서 4강까지 간 잉글랜드는 두 대회 연속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최초, 또 최초…개최국 카타르 '불명예 퇴장'

세계의 벽 실감 '3전 전패'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의 개최국 카타르가 수많은 불명예 최초 기록을 남기며 쓸쓸하게 퇴장했다.

월드컵 역대 최약체 개최국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카타르는 본선 무대에서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 외국 선수를 귀화시키고 개막 6개월 전부터 합숙 훈련을 하는 등 단단히 준비했지만, 세계 축구의 높은 벽을 실감해야 했다.

카타르는 이번 대회 매 경기, 매 순간 빠짐없이 달갑지 않은 최초 기록을 쓰며 고개를 떨궜다.

카타르는 개막전을 치르기 전부터 진기록을 세웠다. 카타르는 이번 대회 이전까지 단 한 번도 본선 무대를 밟은 적이 없다. 월드컵 개최국이 개최국 자격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사례는 1930년 1회 대회 개최국인 우루과이 이후 처음이다. 1회 대회 전엔 대회가 없었으니, 사실상 최초 기록과 다름없다.

그래도 카타르는 희망을 품었다. 개최국 이점과 홈 관중들의 일방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파란을 기대했다. 조 추첨 결과도 나쁘지 않았다. 카타르는 개최국 자격으로 1번 포트에 포함돼 네덜란드, 세네갈, 에콰도르 등 비교적 할 만한 상대들과 A조에 묶였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카타르는 21일 에콰도르와 개막전에서 0-2로 완패하며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국 개막전 패배를 안았다. 월드컵 92년 역사에서 개최국이 첫 경기에서 패한 건 처음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개최국이 첫 경기에서 득점하지 못한 것도 멕시코가 소련과 경기에서 0-0으로 비긴 1970년 대회 이후 52년 만이었다.

카타르는 경기를 치를 때마다 월드컵 역사를 새로 썼다.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에서도 각종 불명예 기록이 쏟아졌다.

카타르는 25일 세네갈과 A조 2차전에서 무함마드 문타리가 역사적인 월드컵 첫 골을 터뜨렸으나 1-3으로 무릎을 꿇으며 32개 출전국 중 가장 먼저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됐다.

카타르는 세네갈전 패배로 개최국 최초로 개막 2연패를 한 팀이 됐다. 아울러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두 번째로 16강 진출에 실패한 개최국으로 남게 됐다. /연합뉴스

네덜란드 감독, "지루하다" 비판에 "그럼 집에 가던가"

조 1위로 16강에 진출

판 할 감독

조 1위로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진출하고도 '지루하다'는 비판에 시달리자 네덜란드 감독이 발끈했다.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는 30일(한국시간) 카타르 월드컵 A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카타르를 2-0으로 물리치고 2승 1무, 승점 7의 양호한 성적으로 16강에 올랐다.

네덜란드는 세네갈을 2-0으로 따돌리고, 에콰도르와는 1-1로 비겼다. 특히 에콰도르와의 경기에선 슈팅이 단 2개에 불과했다.

토털 사커의 원조인 네덜란드는 그간 공수에서 창의적이면서 역동적인 경기로 월드컵 무대를 빛낸 나라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는 자국민들에게서 경기가 '지루하다'는 비판을 자주 듣는다.

조별리그를 1위로 통과하자 루이 판할 네덜란드 감독은 작심한 듯 기자회견에서 자국 기자들의 평가를 반박했다.

로이터 통신, 유로 스포트 등에 따르면, 판할 감독은 "경기 내용에 실망했다는 여러분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보다도 모두가 16강에 진출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 일부 팬들이 대표팀의 경기력에 '화났다'라는 말을 전해 들은 뒤에 판할 감독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대표팀의 경기력이 나쁜 건 아니다"라며 "경기가 지루하다면 왜 그렇게 보도하지 않느냐, 재미없다면서 왜 집에 가지 않느냐"고 기자들에게 공격적으로 반문했다.

판할 감독은 "당신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당신 견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경기력과 관련한 혹평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네덜란드는 B조 2위 미국과 8강 진출을 다툰다. /연합뉴스